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2. 1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- 佛, 파리 도심 리옹역에서 칼부림 사건으로 3명 부상
 - 2.4 언론에 따르면 파리 리옹역에서 말리 국적의 남성이 行人을 대상으로 칼과 망치로 공격하여 3명이 부상당했으며, 용의자는 다른 行人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되어 현재는 구금중이라고 보도
 - ※ 외신은 프랑스 당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치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사건이 터져 우려스럽다고 지적
- 튀르키예, 이스탄불 법원 청사에 2인조 괴한 총기 테러
 - 2.6 언론은 튀르키예 이스탄불市 카르타네지역의 정부청사 지구內 법원 청사인 '정의 궁정'의 출입구 검문소에 남녀 2인조 무장 괴한이 총격을 가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
 - ※ 용의자 2명은 현장에서 사살됐으며, 내무부는 미국·튀르키예·유럽연합 등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급진좌파단체 혁명민족해방전선 소속이라고 부언
- 獨, 정보기관의 AfD 청년 조직 감시 허용 판결
 - 2.6 독일 행정법원은 AfD의 산하조직이 헌법수호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, AfD를 우익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한 헌법수호청의 판단을 존중하고 同 단체가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활동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
 - ※ 법원은 인종적 개념으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AfD의 핵심 이념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, 반헌법 단체와 지속 교류하는 점도 근거로 들어 판결

미 주

- 美 CIA·이스라엘 모사드, 중재국과 휴전안 재협상
 - 2.13 언론은 美 CIA가 이스라엘 모사드와 중재국인 이집트·카타르 참여 下 휴전협상을 이달 13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, 인질석방과 일시 휴전을 골자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보도
 - ※ 「조 바이든」 美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안에 대해 “가자지구에 최소한 6주기간의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평온을 가져다 줄 것”이라고 발표

중 동

○ 이란, 英 은행 이용해 무장단체 등에 테러자금 지원

- 2.5 언론은 이란이 미국의 금융 제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 회사 설립 후 영국 은행을 통해 親이란 무장단체에 테러 자금을 전달하거나 이란 혁명수비대를 위해 수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보도
 - ※ 한편, 이라크는 이란으로 달러가 흘러가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 內 8개 은행에 대한 달러화 거래를 중지했다고 발표

아 · 태평양

○ 서울중앙지법, 알카에다에 송금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2심 실형 선고

- 2.13 서울중앙지법은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의 전투부대인 ‘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(KTJ)’에 20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을 지원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
 - ※ 재판부는 “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공공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”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

○ 태국, 叛軍과 평화회담 6일만에 폭탄테러로 5명 사상

- 2.13 언론은 태국정부와 이슬람 무장叛軍 민족해방전선(BRN)이 평화 회담을 재개한지 6일만에 叛軍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탄에 의해 트럭이 폭발하여 자원봉사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고 보도
 - ※ 태국정부와 BRN은 지난해 2월 평화회담을 추진하였으나 중단되었으며,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재개

아프리카

○ 알샤바브, 소말리아 수도 공격 UAE·바레인軍 4명 사살

- 2.11 언론은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소말리아 반군 알샤바브가 모가디슈 수도에 있는 훈련캠프를 습격해 아랍에미리트軍 3명과 바레인軍 장교 1명을 살해했다고 보도
 - ※ 온라인 성명을 통해 알샤바브는 소말리아에서 UAE 군사활동에 관여한 여러 명을 죽였다면서 UAE가 소말리아 내전을 돕는 이슬람 샤리아法의 적이라고 비난

파키스탄 탈레반(TTP), 경찰서 대상 자폭테러

- '23.2.18 파키스탄 최대 도시인 남부 카라치에서 파키스탄 탈레반(TTP)이 경찰서를 습격한 뒤 자폭테러를 감행, 경찰과 테러조직원을 포함한 총 7명* 사망, 14명이 부상

* 경찰 2명, TTP 조직원 3명, 경비원 1명, 미화원 1명

- 사건 당일 TTP 조직원 3명은 수류탄과 총기 등으로 무장한 뒤 카라치 경찰서에 진입 후 건물을 장악했지만 경찰 특공대의 대처로 초기 진압되자, 테러범은 同 상황에서 폭발물을 이용한 자폭테러를 감행

※ 이번 사건외에도 TTP는 파키스탄에서 이슬람주의에 입각한 국가 건설을 위해 정부와 국가 고위직 주요인물 등을 겨냥한 테러를 지속 자행 中

- 사건직후, 파키스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“자국에서 테러를 뿌리 뽑을 것이며 테러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 처형하겠다”라고 언급하며 同 사건을 통해 테러를 종식 시키겠다는 강력한 대응의지를 발표

< 파키스탄 탈레반(TTP) >

- (목표/이념) 파키스탄 정부 타도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 / 이슬람 극단주의
※ 테러단체 지정 : UN('11.7), 미국('10.9), 캐나다('11.7) 등
- (연계세력) 탈레반, 알카에다, 라쉬카르 에 타이바(LeT) 등
- (핵심인물) 무프티 왈리 메수드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북서부 부족지역(FATA) 및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(쿠나르洲 등)
- (활동수법) 부족지역內 게릴라戰 및 페샤와르 등 주요도시에서 폭탄테러 등 자행
- (주요동향)
 - '07.12 라왈핀디에서 유세중인 「베나지르 부토」 前파키스탄 총리 암살
 - '11.5 페샤와르 국경수비대에 자폭테러 자행, 80명, 사망 150명 부상
 - '18.7 페샤와르 총선 유세장에서 자폭테러 자행 22명 사망, 75명 부상